

사회

‘북 연평도 포격에 전사’ 광주 서정우 병장 가족·친구들 “오늘 휴가 온다더니...” 망연자실

군산 문광욱 이병 가족 “잘 있다고 했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요”

23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해병대 병사 2명 가운데 광주 출신 서정우(21) 병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병장은 말년 휴가 당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큰 충격에 빠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23일 “중상자 4명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광주 출신 서 병장과 군산 출신의 문광욱 이병 등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서 병장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부모가 동생(15)과 함께 살고 있다. 서 병장은 이날 휴가명령을 받고 광주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못해 근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병장은 사망 전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배야 꼭 떠라. 휴

가 좀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서 병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과 지인 등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으며, 서 병장의 미니홈피 등에는 10만건의 추모 글이 이어졌다.

6개월 전 서 병장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유모(21)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소 착하고 예의바른 행동으로 내무반 내에서 모든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착실한 후임이었다”며 “운동을 매우 좋아해서 틀만 나면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우가 빨리 전역하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전역하기도 전에 먼 나라로 가버렸다”며 “그 곳에서는 전역한 것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란다”며 명복을 빌었다.

또 김모(22)군은 “4년 전 서 병장

과 함께 광주 모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항상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생이었다”며 “참 열심히 살던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 병장과 함께 숨진 문 이병은 전북제일고를 졸업하고 군장대학에 다니던 중 입대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병은 이날 포격 직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중 사망했다.

이날 문 이병의 집인 군산시 수송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비보를 듣고 급히 귀가한 아버지 영조(47)씨와 어머니, 여동생, 큰아버지 영구(57)씨 등이 모여 차마 믿기지 않은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영구씨는 “광욱이가 어제 엄마에

게 전화해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되고 말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말을 잊지 못했다.

문 이병은 지난 8월에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최근 연평도로 배치됐는데, 입대 3개월여 만에 변을 당했다. 가족들은 문 이병이 “평소 쾌활하고 성격이 착해 인기가 많았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영구씨는 “일찌감치 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1화기를 마치고 곧바로 군에 지원했다”며 “몇 시간 전에 군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공식 통보 받았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구씨는 “광욱이 부모와 함께 곧 서울의 군 병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제발 끊이었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북한이 연평도 인근에 해안포를 발포한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장소식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원룸 건축비리 수사 광주 전역으로 확대

경찰, 인·허가 과정 공무원 금품 로비 포착

광주 서구의 건축 행정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광주지역 모든 자치구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로부터 다세대 주택(원룸) 건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인·허가와 불법 건축물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선 구청이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는 다세대 주택 불법 증·개축 단속 과정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구청의 경우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현장 확인없이 준공 승인을 내준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다세대 주택 증축 과정에서 구청 측의 묵인하에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구청 건축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건축물 허가 및 점검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들 “학교측 처벌 과정에서 인권 유린”

인권위에 진정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 측이 가해학생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행동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학부모 5명이 이날 오전 진정서와 함께 학생들의 자술서, 정신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은 가해자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구타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5~6월 광주 모 고교 1학년 같은 반 학생들 5명이 1명의 여학생에게 폭행, 따돌림, 빵셔플(학교에서 쉬는 시간 등에 매점에 빵을 사러 다니는 피해학생)을 행했다. 가해학생들의 이유는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과

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안 학교 측은 11월 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및 ‘전학조건부 퇴학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측이 가해학생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이다.

지난 10월 27일 한 교사가 생리기간 중인 한 가해 여학생에게 반 친구들(남녀 합반)이 듣는 앞에서 “더러우니까 뒤에 가서 수업 받아”라며 의자에 앉지 못하게 했으며, 그 전에도 여교사들은 공공연하게 가해학생들에게 면박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욕설은 한 게 많다. 하지만 피해학생 한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신청사 건립 과정 수리 전남경찰 간부 등 징역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3일 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남경찰청 유모(57)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경감과 오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했다.

유 경감 등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건립중인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Y업체 대표 김모(47·구속)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뇌물을 건넨 Y사 대표 김씨는 지난 8월 초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유 경감으로부터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자격자 농가보조금 부당 개입

신안 군의원·공무원 3명 입건

목포경찰은 23일 농가보조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무자격자들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탈 수 있게 도운 신안 군의회 Y(55) 의원을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Y의원의 지시를 받아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안군

모 읍장 C(52)씨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신안군의 농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미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를 공무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선정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공무원들은 Y 의원이 선정해 준 대상자들에 대해 적법한 선정절차 없이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해 13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혐의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회삿돈 100억대 횡령 국민상조 대표 구속

서울 남부지방경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병기)는 23일 회삿돈 1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장래대행업체인 국민상조의 나기천 대표와 이길재 부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최근 수년 동안 직원 수당을 허위 지급하거나 거래처와 거래 내역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고물 매입권 달라” 건설사 간부 폭행

여수경찰 50대 영장

여수경찰은 23일 수의계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 간부를 폭행한 서모(51)씨에 대해 폭력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밤 10시30분께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에서 모 건설사 간부 장모(55)씨

에게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물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장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수지역 발전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씨는 민원해결을 빌미로 여수시 신덕동의 한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장씨에게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주 완강 창다발

창은 23일 점이 틀렸으며 양심을 품고 한밤중에 역술가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25분께 전주시 평화동 김모(64)씨의 집에 화염병을 던져 창틀 등을 태운 혐의.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씨는 “3년 전에 철학관을 운영하는 김씨의 권유로 부모의 묘를 이장했으나 그 후로 오히려 되는 일이 더 없어 찾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